

사설

긴 겨울을 이겨낸 봄이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직 가끔 눈발이 날리기도 하지만, 낮 동안은 분명하게 따듯한 봄볕을 느낄 수 있다.

새 봄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고성군야구연합회가 제1회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막하고 10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데 이어, 4월 2일과 3일 이틀간은 제30회 고성군 축구연합회장기 대회가 열린다.

이들 생활체육인들은 비록 특정 종목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모임이지만, 5개 읍면을 대표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한다. 또 자신들의 건강을 다지는 일과 함께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비록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도,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연관이 있는 팀을 정해, 적극 응원하고 성원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신과 전혀 연고가 없는 프로야구

하고 있으며, 레드팰콘스는 고성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다. 앞으로 토성면에서도 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야구에 비해 역사가 깊은 축구연합회는 더욱 세분화되어 13개 클럽이 5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간성에는 한마음과 금강, 거진에는 토요, 화요, 일

팀이 승리하면 함께 기뻐하고, 아깝게 패하면 격려의 박수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다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축구대회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출전한다고 하니, 경기장을 달리는 아들, 동생, 오빠, 아버지를 응원하면서 가족소풍을 즐기듯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우리지역은 현재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전혀 없어, 속초지역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생활체육이 우리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주말엔 생활체육대회 구경가자

팀을 응원하고 '팬' 입을 자처하는 것처럼,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체육클럽을 상대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야구연합회의 경우 다이아몬드와 퓨리어스가 간성을 연고로 하고 있으니 간성읍 주민들은 이들을 응원하면 될 것이다. 또 레디언스는 거진지역을 연고로

요, 맥우, 현내에는 현내와 해금강, 죽왕에는 죽왕, 토성에는 청송과 토성 등의 클럽이 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생활체육 경기장을 찾아 자신과 연관있는 팀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자기 지역의

에너지의 源泉(원천)은 智慧(지혜) 能力(능력)이로되, Oswalt, W.(독)의한 19~20c초 에너지론은 "모든 자연법칙은 에너지변화로 귀착시킨다"는 학설이다.

원기·정력·운동·위치·열전기·에너지대사(alternation)-생물체의 물질대사와 함께 행하여진 에너지(energy)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繼隨子(속수자; 한국 전역분포 연료성분 한약재) 코카아스(파푸아뉴기니 산지;알코올성분) 무 고구마 감자 옥수수 사탕수수 들깨 유채 콩 익새 소나무 유칼리나무(오스트레일리아원산지; 잎은 정유 나무는 선박 건축 항료구충제) 등에서, '모든 식물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찾는 지혜이고, 동력의 에너지자원인 유연탄 무연탄 핵연료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수력 풍력 조력 지열 태양열 온천수 등 자연력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연소 없이 원자력으로 전환, 절약형 기자재 등을 연구개발 하고, 생산절약형시설 시공설치 열병합 발전 지역난방 시설공급 등을 이용하는 지혜이다. 물은 산화 수소2의 화합물 이라는데, 여기 공기에도 ... 또한 바닷물에는... 동물의 분비물에서...등 '유형무형물질'을 탐구, 대체에너지 개발로 이어진 지혜를 재언한다.

아프리카 석유싸움이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 물가가요동치니 민심행행하여 이라다가 문전박대나 되지 아니할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오대양 육대주를, 남북극 누벼 활로를 그리고 중단 없는 우주를 적극적으로 개척 하여야함을 부언한다.

다행히도 해외에 눈을 돌려, 2년 전 캄보디아 농장을 개척으로 식용 옥수수(전분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식물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찾는 지혜

올리고당) 생산 식량 기지화한 중남해외농업 자원개발은 중청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현지 농민조합 결성 8만5천ha농사 연 85만t 옥수수를 생산하여 국내 연간 수요량 10%를 대부분 식용으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가격 안정에 보탬이 되는 바이오 연료의 한몫을 한다는 것. 또 보해(주)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코카아스를 몇 년 전부터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계시장 개척을 위하여 더더욱 박차를 가하여야한다. 해외 개척을 러시아 중국 오세아니아 주 몽골로 브라질 등 기타 지역으로 식량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군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농장 50여개가 참여하고 있으나 시범 수입단계에 있다는 것.

한편 우리 해수에는 철분 마그네슘 미네랄 이산화황 오수탄산염 탄산염 등이 함유되어있음과 소금엔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염소 염산제조 원료로 사용하듯이 바닷물에서 또는 물에서 연료 기타

를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기후변화로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가뭄 오세아니아 주 홍수 등으로 밀 대두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옥수수는 1년 사이 90% 등귀하였고, 게다가 바이오연료 수요로 인하여 옥수수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리비아 및 중동 사태로 인하여 석유파동의 직면 곡물가가 요동치는 상태에 있다는 것.

한편 2008년 식량 대란이 벌어졌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World Bank(세계은행)report는 1년 20%상승했다고, UN Food Agriculture Organization(유엔식량농업기구)는 금1월 발표는 식품가격지수가 230.7로 사상 최고치로 바꿨다고, United States Department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의하면 농산물 도매가격이 등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는 식량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끊임없는 외교활동으로 United Arab Emirates (아랍도후국연합)와 원전수주 동시 원유 1년6월 사용량을 확보하였고, 유럽공동 시장과 Free Trade

Association(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미국을 비롯 중남미와도, 생존의 지혜가 번득인다.

곡물가격만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삶은 인간사에서 더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인간간에 교감의존 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에너지보존의 원리를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에 더 많은 배려하는 마음,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생각의 실행은 만사의 개선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 사는 사람 이외는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힘든 일이며 생존에 어려운 것이다. 자기관리의 지혜, 대인 관계의 지혜로운 삶이 중요하다.

첨언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 온 엉겅퀴 생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瘀血(어혈; 타박 충격응혈해소 고통을 풀어줌) 정력 보강 익정 작용(정력보강 익정작용;정력더하고 병을다스림)과 소변불쾌와 발기현상이 살아진 증세에 꾸준히 달여 장복하면 효과가 있다.

또한 입이 자주 마르고 뒷목이 빠근하고 무거울 때 다리에 힘이 없고 발바닥에 열이 오를 때 어깨와 목을 짓누른 듯 하는 증상이 있을 때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을 때 통증 응어리 어혈을 해소해주는 작용을 한다. 간질환 產後浮腫 黃疸(산후 부종황달; 얼굴 피부가 누렇게 됨) 간경화증으로 腹水(복수;배 창자에 물이 참)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간 치병에 민들레 인동초와 3대자연식의 하나이다. (本草綱目참조)*엉겅퀴(대개채)를 보전하자.

◇편집국에서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청 소재지인 춘천 등지에서는 관심이 큰 것 같지만, 우리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도 결국 먹고 사는 일과 무관하지 않으니 지나친 무관심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무관심은 아직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정을 이끌어가는 인물을 선택하는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바르게 행사하자.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